



전북을 바꾸는 힘

sjbnews.com

제5366호

대표번호 063-230-5700

2021년1월28일 목요일 (단기 4354년)

코로나 블루 확산, 심리방역 대책 시급

정성학 기자 csh@sjbnews.com

"자가격리 조치이후 나도 감염된게 아닌지, 아이들 밥은 누가 챙길지, 내 가 만났던 지인들은 괜찮은지, 회사는 위기를 잘 넘길지 등 온갖 상념이 머 릿속을 헤집어놔 너무 고통스러웠다."

전주에 사는 40대 여성 직장인 A 씨가 털어놓은 얘기다. 중간 관리자인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본사 출장길에 사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현지 사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고 한다. 그는 2주 뒤 음성 판정을 받고 돌아왔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했다고 한다.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못이루는 날이 적지않다는 토로다.

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A씨처럼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른바 '코로나 블루'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와 전북정신건강복 지센터에서 벌인 심리상담 사례는 모 두 6,940건,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 태와 관련된 상담은 14.5%(1,004건) 로 집계됐다.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의 경우 전체 636건 중 63.2%(402건) 도내 심리상담 14.5% 코로나19 사태와 직결 건강은 물론 실업 위기와 경제적 궁핍 등 호소 K방역과 더불어 심리방역도 범사회적 대책 시급

■2020년도 전북지역 심리상담 현황



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담 사례였다. 피상담자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코 로나19 취약계층이 전체 77.8%(313 건)에 달했고 소상공인이 3.7%(15건) 를 차지해 뒤이었다. 확진자나 자가격 리자가 포함된 기타사례는 18.4%(74 건)를 보였다. 정신건강복지센터 또한 전체 6,304건 중 9.5%(602건)가 코 로나19 때문에 상담한 사례로 파악 됐다.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(2 건), 또는 자가격리자(441건)가 무려 73.6%(443건)에 달했다.

그만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 가 많았다. 피상담자들은 주로 건강



문제를 비롯해 사업장 휴폐업으로 인한 실업 위기나 경제적 궁핍,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등이 혼재된 형태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. 전북도는 즉각, '심리방역'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.

도 관계자는 "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적 모임이나 경제활동 제한 등과 같은 방역조치도 길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극심 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"며 "다 음달 1일까지 도내 모든 지자체들 의 견을 모아 조금이나마 불안감과 우울 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 구해 추진할 방침"이라고 말했다.

현재 그 대책으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화상상담서비스,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심리치료용 꽃밭 조성, 온라인 사회관계망(SNS)를활용한 범도민 위기극복 캠페인, 축구장이나 테니스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 부분개방 등이 떠올랐다는 전언이다. 한편, 이 같은 문제는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추정됐다. 따라서 범국가적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.

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(남원·임실·순창)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 것 으로 분석됐다.

실제로 지난해 1~4월중 전국 의료 기관을 찾은 우울증 환자는 모두 50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. 월 평균 약 12만5,000명꼴로, 전년(월평 균 6만6,500여명) 대비 2배가량 급증 했다. 이는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추 정됐다. 이 의원은 "이제는 'K방역'과 더불어 '심리방역'에 대해서도 범사회 적인 섬세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"며 "코로나 블루로 인 한 우울증 상담과 치료가 제때 이뤄 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이 신속히 나왔으면 한다"고 지적했다.

3 출 내 유해완 바와 클리 본격 수 말과 탐

"아-태 마스터스 잘 치르자" 27일 전북도를 방문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 위원이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'2023' 전북 아시아·태평양 마스터스대회'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. 이른바 '아마추어 올림픽'으로 불리는 마스터스는 IOC 공인국제 스포츠 행사다. 〈관련기사 15면〉 /공현철 기자

변덕스런 날씨… 눈 폭탄에 강추위까지

28일 태풍급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. 눈이 지나간 뒤에는 또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된다.

전주기상지청은 27일 "28일 오전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리 기 시작해 낮 한때 강한 눈이 내려 쌓이겠다"고 예보했다. 이날

내리기 시작한 눈은 금요일인 29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이 기간 예상적설량은 3~15cm로, 무주 등 동부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도 예상된다. 눈이 데려온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도에서 영상 1도,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서 7도로 예보됐다. 29일은 기온이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6도, 낮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를 보이겠다. 체감온도는 시속 25~65km로 부는 강풍 탓에 영하 20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.

특히 해안과 섬 지역 등에서는 순간 최대 시속 90km, 그 밖의 지역은 시속 70km 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. 소형 태풍급 바람은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.

기상지청 예보관은 "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오는 30일 오전까지 강추위가 예상된다"며 "29일까지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교통안전 등 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"고 당부했다. /양정선 기자

- 2면 새만금, 행정구역 분쟁에 '임시 주소' 부여
- 3면 민주당 공직후보 추천, 중앙당 입김 배제 방점
- 5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-광역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
- 면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된 무인점포

고향은 못가도 여행은 간다… 설캉스족 꿈틀

숙박업계 "설 연휴 예약 70%까지 완료" '11~13일 연박 불가'… 100% 예약 마친 곳도 거리두기 조정안 예고에 숙박-외식업계 기대

코로나19

설 명절 관광지를 중심으로

집을 보여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된다. 주요 관광지의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이 폭주하고 있는 게 예상을 뒷받침한다.

지난 16일 정부는 설 명절 이동 자제를 호소했다. 정세균 국무총리 도 "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· 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,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"고 했다. 이런 당부 탓인지 지난 19~21일 진행한 설 기차표 예매율은 호남선 21.5%, 전라선 25.5%에 그쳤다. 이는 지난해 추석예매율 보다 각각 5.8%p, 4.1%p 하락한 수치다. 코레일은 "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설 연휴 고향방문 여행자제 권고로 지난해 추석

보다 예매율이 떨어진 것 같다"고 분석했다.

문제는 고향 방문 예정 인파가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.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부안, 무주 등리조트·호텔 등의 예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. 140실 규모의 무주A리조트는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다인실 70%가 예약마감됐다. 이리조트 관계자는 "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안에도 예약률이꽤 높은 편"이라며 "연휴 기간까지예약이 몰릴 것을 예상하면 객실 80%는 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

다"고 예측했다.

부안의 한 리조트는 11일부터 13 일까지 연박 가능한 방이 없다. 사 실상 연휴기간 예약을 마친 것이다.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한 숙박업 소도 같은 기간 전체 객실 예약이 마감됐다.

숙박업계는 설 연휴 예약 문의가 잇따르면서 실제 이용은 더 많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한 리조 트 관계자는 "내달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완화되면 이용자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"며 "특별방역 대책이 나온다 해 도 호텔과 리조트 등은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객실을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을 것 같다"고 했다. /양정선 기자

